아르코예술극장에서 조우하는 우리 공연예술계의 미래

아르코예술극장이 신진 예술가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지원하고자 신설한 '차세대 예술가 기획 프로그램(Next Power Generation Program)' 에 선정된 홍은지, 서재형의 무대가 2006년 1월에 아르코예술극장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경쟁력 있는 젊은 예술인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진지한 작품을 통해 우리 공연예술계의 미래와 만나시기 바랍니다.

홍은지 〈단막 실험극 연작 Vol. 1- 내 입장이 되어봐!〉

〈단막 실험극 연작 Vol.1- 내 입장이 되어봐!〉는 장편에서는 다루기 힘든 도전적 담론이나 실험적 형식으로 삶에 대한 응축된 시각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단편' 의 정신을 무대 위에서 되살리고자 합니다. 〈단막 실험극 연작 Vol.1 - 내 입장이 되어봐!〉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L.Stevenson, 스코틀랜드)의 '사람을 죽이다(Markheim)' 와 레이먼드 커버(Ramond Carver, 미국)의 '당신도 내 입장이 되어보시오(Put Yourself in my shoes)' 를 모티브로 참여자들의 연극적 상상과 확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소설 속에 그려진 '서로 다른 입장들' '살인' 그리고 '나와 또 다른 나' 를 소재로 하여 내면 깊숙이 숨겨진 자신과의 만남을 향해 짧고도 긴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공연일시 : 2006년 1월 4일(수)~15일(일), 평일 7시 30분 / 토 4시 30분, 7시 30분/ 일 3시/ 월 공연 없음
▶공연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공연문의 : (02)325-0110

서재형 〈릴-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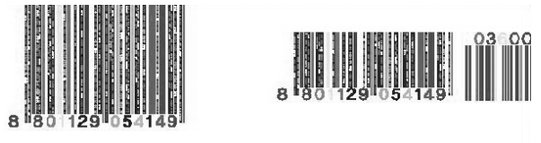
깔끔한 무대 미학과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인 전작 〈죽도록 달린다〉를 통해 주목받는 콤비 작가 한아름과 연출가 서재형의 세 번째 신작 〈릴-레-이〉는 마지막의 기발한 반전과 연쇄살인을 둘러싼 긴장감 있는 사건진행이 돋보이는 연극을 선보입니다. 연속이미지극 〈릴-레-이〉는 풀리지 않는 살인 사건을 릴레이식으로 풀어나가는 동시에 같은 대사, 같은 동선, 같은 이미지, 오감의 자극을 통한 이미지의 반추 등을 통해 선수와 선수가 바톤으로 연결되어 한 경기를 하듯이 뒷 장면과 앞 장면을 이어나가며, 또한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이 보여주되 시점을 관객에게 돌려 지나간 장면의 연속성을 연출합니다.

▶공연일시: 2006년 1월 19일(목)~29일(일), 평일 7시 30분 / 토 4시, 7시 30분 / 일 3시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공연문의: (02)744-7304

※ 공연 일정은 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대표작가초대전

양주혜 : 길 끝의 길
2005.12.28~2006.2.11, 아르코미술관 전관



아르코미술관에서는 2005년도 대표작가전에 설치작가 양주혜를 초대하였습니다. 아르코미술관 전관에서 펼쳐질 대표작가초대전 〈양주혜 : 길 끝의 길〉은 12월 28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열립니다. 색점을 찍는 작가, 건물이나 건축 공사장의 가림막에 미술을 덧입히는 작가로 잘 알려진 양주혜는 점과 선이라는 보편적인 조형의 요소를 가지고 자신 특유의 스타일로 우리에게 손짓을 건네는 작가입니다. 외국에서 의사소통이 힘들었던 시절, 임의로 알파벳에 색을 부여하여 실제 글을 쓰듯이 '그린다' 에서 '쓰기' 의 색점 작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배접이나 퀼트의 방법으로 캔버스를 만들고, 그 위에 덧칠하기와 덧붙이기를 반복하여 축적의 흔적이나 시간의 깊이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1990년대 중 · 후반을 거쳐 2000년대로 오면서 양주혜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어휘인 색점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생명력을 더욱 발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오면 그 전부터 깊은 관심을 보여온 기하학적 형태로 배치 · 기록된 불경의 형태에 주목하고 자신이 진행하는 작업에 활용하였습니다. 무한히 반복됨으로써 확산되는 의미의 세계는 작가의 작품 속에서 연속적 색점이 빛으로 환원되어 모든 감각적 체험을 한데 모읍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건물의 한 면을 완전히 천으로 가리거나 공사 중인 건물의 가림막 틀 자체를 캔버스로 대응시킨 거대한 스케일의 외부설치 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거리의 행인들은 그가 조리한 대형 그림이자 동시에 입체작품의 건물을 감상하는 관객으로 전환된다. 도시 미화, 또는 예술의 대중적 보급이라는 문맥에서 신축 공사 현장 가림막은 좀 더 적극적인 생활 예술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양주혜는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 가 빛을 통해 읽혀지는 것에 주목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에 '바코드' 를 찍는 작업을 하고 그것의 정체성을 읽어 내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시 · 공간화 시키면서 체험토록 유도합니다.
이번 대표작가초대전에서 양주혜는 미술관 내 · 외부를 모두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바코드' 작업을 펼쳐 보입니다. 더불어 이전의 평면작업을 연대기적으로 풀어내어 보여줌으로써 양주혜 자신의 총체적인 작업세계를 드러냅니다.